



## 학부모총회 후기



지난주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다. “700만 원씩은 걸치고 간다” ... 엄마들의 데뷔 날 ‘학부모 총회’

내용인즉 이리하다.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을 둔 30대 A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공개수업 겸 학부모총회에 참석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명품 가방 하나씩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샤넬백부터 에르메스 켈리백, 버킨백까지 10명 중 8명은 몸에 최소 700만 원씩 두른 것 같았다나?

기사를 대충 읽고는 일단 좀 코웃음이 나왔음. 뭐 너무 뜬금없달까? 어디 뭐 통계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학부모가 “아니 엄마들이 열에 여덟은 명품백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씩 휘두르고 학교에 왔지 뭐야~” 라고 저녁 식사 중에 남편에게 했을 법한 이야기를 갖고 기사를 쓰다니 말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맘카페와 SNS를 타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꽤나 이슈가 되었고 나도 아줌마여서인지 어찌다 이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최소 700만 원?! 어디냐? 누구냐? 나는 모르는 세계구나!

나도 매년 3월 학년 초에 열리는 공개 수업 겸 학부모총회에 꼭 참석한다.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불참하는 학부모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내 아이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을 방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총회 날짜가 잡히면 나 역시 무엇을 입을까 잠시 고민하긴 한다. 너무 어둡고 무거워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기온이 갑자기 초여름 날씨처럼 따뜻해졌으니 너무 덥게 입어서는 안 된다. 세 자녀들의 학급에 모두 방문해야 하니 뛰어다닐 수 있는 편안한

복장이어야 한다. 나의 고려 대상은 그냥 여기까지이다. 명품 가방을 든 고상한 학부모총회룩 따위는 없다. 아무리 한껏 멋을 낸다 한들 700만 원을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애당초 그런 애를 써볼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나는 이날 하루 종일 진짜 땀내 나게 뛰어다녀야만 했다. 자, 고상하지 못한 다자녀 엄마의 학부모총회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나?

나는 현재 중학교에 한 명, 초등학교에 두 명의 아이들이 재학 중인데 하필이면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총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인 것이다. 인근 다른 중학교들은 모두 한 주 먼저 총회를 끝낸 상황인데 하필이면 우리 딸이 다니는 여중은 완전 시간이 일치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 전부터 고심에 빠졌다. 아이들의 의중을 살짝 떠보니 다들 엄마가 와줬으면 하는 눈치였다. 엄마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니 그에 비하면 다행이긴 한데 운동화끈을 동여매고 딸의 반 부모 상담에 참여했다. 우리 딸 반은 총 15명의 학생 중 나 포함 3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는데 큰 소득은 없었고 이 모임의 실질적인 목적은 따로 있었다. 매년 학부모 급식 모니터와 시험감독 참여자가 필요했던 것! 신청해야 할 횟수가 총 6개였는데 학부모가 3명밖에 없었고 두 분은 하나씩 신청하시고는 더 이상은 절대 못한다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쫄지에 내가 혼자 4회나 신청을 해야 했다. 담임 선생님이 대 놓고 신청서를 들이미시는데 못 본 척 뒤 돌아 오지 못했다는..... 심지어 우리 딸은 학급 임원도 아닌데.....

암튼 부모 상담까지 마치고 교문 앞에서 딸을 만나

한 정거장 거리에 교정 치과 예약을 가기로 했는데 우리 장한 따님께서 교정 장치를 집에 두고 왔대서 다시 집에 갔다가 치과에 가야 했다. 진료 마치고 딸은 수학 학원에 가고 나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친정 엄마를 만나 이른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자주 약속 시간, 장소를 착각하신 적이 있음) 약속 시간 5분 전에 전화를 하니 엄마가 그만 TV를 보다가 시간을 놓쳐 지금 막 집에서 나오셨단다. 나는 정류장에도 15분이나 미리 도착했는데 그 이후로도 20분을 더 기다려야 했음. 그래도 무쇠판에서 구워지는 1급 한돈 삼겹살을 배 터지게 먹고 평화가 찾아오려던 찰나 밥 잘 먹고 물로 입가심을 하시던 엄마의 찬물 끼얹는 한마디 “아이고~ 물이 제일 맛있다.” 매번 잘 드시고 꼭 이러시더라. 암튼 나는 또 집에 가서 아이들 저녁을 차려줘야 했기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만원 버스, 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정신 없어서 그만 한 정거장 먼저 내려버렸고 또 땀 뻘뻘 흘리며 뛰어서 집으로 오고 말았다.

휴우~~~ 참으로 길고 고단한 하루였다. 이런 내게 700만 원어치 명품 치장이 뭐가 필요하리요? 설마 내 학부모총회만 이런 건가? 우리 학교 엄마들도 10명 중 8명은 명품 풀 장착하고 왔던 거야?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무엇이든 맡겨 주십시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 바이어 보조프로그램 다운페이 & 클로징 코스트

- 01 \$10,000 DOWNPAYMENT ASSISTANCE
  - 02 \$7,500 CLOSING COST CREDIT
  - 03 GOVERNMENT ASSISTANCE UP TO \$140,000
- 지금 전화주세요! > 아이비 714.904.1202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